

# 월간양계 3년을 바라본다



신 정 재

(월간양계 편집위원)

—자기의 세 돌 때를 기억하는 사람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마음껏 축복해 주고 귀여워 해 주었을 것이다—

월간 양계도 이달로 이제 세 돌을 맞이했다. 1969년 11월호를 창간호로 내면서 그간에 한국가금협회는 물론 업계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으로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해온 것을 우선 축하하는 바이나 사람과는 달리 이 월간양계는 지나온 3년간의 기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니 이를 종합 재검토해 보도록써 과오를 과감히 찾아내어 보다 나은 다음호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세돌을 맞는 아기를 귀여워해 주는 것 만큼 가치가 없는 일은 아닌 것 같다.

공산당식의 “자아비판”이 아닌 허심탄회한 자세로서 “행차 뒤의 나팔 부는 격” 보다는 여유를 갖고 불평이 아닌 근거있는 불만의 표시로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1969년 11월 “첫호를 내면서” 12월에 “1969년을 보내면서” 1970년 1월 “1970년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의 권두언은 누가 보기에든 탄생의 진통과 여유없는 창간을 보는 것 같아 재미있다. 초창기의 이런 의혜적인 권두언은 이해할 수 있겠으나 그후의 권두언을 보면 핵심이 없는 일반적인 내용의 것이 태반이다.

월간양계가 기술지임에는 틀림없으나 어디까

지나 잡지는 잡지다. 잡지의 특성은 [중요한 문제의 제시이며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월간양계는 잉계인의 대변자로서 자처하지만 권두언이 포함한 내용은 추상적인 제목 내용이나 정신적인 문제를 다룬 것이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사료 가격 인상은 최소로...” 등인 현실적인 문제를 제시 혹은 주장한 것은 사회 정도밖에 안된다. 월간양계의 발행처가 한국가금협회인 관계로 정부와 사료협회, 부희협회 등 공동 운명의 테두리에 있는 여러 단체와 광교주 등의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면한 문제 혹은 규탄되어야 할 것은 권두언에서 뿐만 아니라 논평, 해설 등 다른 난을 신설하여 기술, 경영 등 생산관계의 전문기사 이외에 경제적인 기사를 늘려 다루어야 될 줄 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두언을 집필하는 필자가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가금협회장 교수 혹은 협회임원이 거의 전부였으나 이보다는 편집부나 발행인 혹은 적당한 사람에게 일임하면 일정기간 동안 체계있게 시사성을 더욱 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달의 내용을 집약하고 그 달의 문제 중에서 중요한 것을 강조함으로써 “언론”으로서의 사명도 더하여야 할 것이다.

기사내용을 통계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물론 숫자로 표시되는 모순도 있으나 경향의 일면을 볼 수 있으며, 분야별로 경중을 가릴 수 있어 가치있는 것으로 본다. 기사 중에서

도 기술과 직결되는 생산적이며 전문적인 기사와 직접 기술 생산과 관계없는 기사들로 나누어 보았으며, 편집부에서 집필하는 것 중의 “업계동향” “편집후기” “이달의 시장” 등의 난은 일반기사의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기사의 분포도

| 기사내용        | 1970년 | 1971년 | 1972년6월현재 |
|-------------|-------|-------|-----------|
| 유통가격정책전망    | 20    | 23    | 34        |
| 경 영 관 리     | 55    | 55    | 36        |
| 영양 사료, 약품   | 34    | 67    | 30        |
| 질 병 위 생 방 역 | 33    | 39    | 33        |
| 육 중 부 화 생 리 | 4     | 12    | 9         |
| 소 계         | (146) | (206) | (142)     |
| 현지탐방·기행문    | 10    | 14    | 12        |
| 수필, 제언, 칼럼  | 8     | 27    | 9         |
| 통계자료·기타     | 8     | 18    | 32        |
| 내 외 논문소개    | 12    | 13    | 5         |
| 탐 요 리       | 12    | 14    | 10        |
| 소 계         | (50)  | (86)  | (68)      |
| 합 계         | 196   | 286   | 210       |

전문기사의 교수 집필 비중

|                                  | 70년 | 71년 | 72년       |
|----------------------------------|-----|-----|-----------|
| 전기①~⑤합계                          | 146 | 206 | 142       |
| 교수 집필 기사                         | 66  | 67  | 42(35.4%) |
| 교수 5인이 쓴 기사(한길주·오혜정·최창채·오봉국·김준수) |     |     | 84(47.5%) |

기사의 분포도를 보면 경영 관리 기사가 단연 비중이 큰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오히려 비중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월간양제가 양계업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좀 더 이방면의 기사 특히 사례(事例)를 들어 실질적인 것을(교과서적인 나열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면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유통 가격 정책 전망은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개개면이 있으나 그만큼 지난 3년동안의 경기의 기복이 심하였고 불황을 느낄 수 있었던 결과라고 보겠다. 영양 사료 분야는 기업 양제, 대단위 양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특히 지난 3년간의 사료업체의 비약적인 발전 기간 동안의 또는 국내 사료 개발 등의 결과로 보며 앞으로는 이 분야의 비중은 줄어야 될 듯하다. 실제 양계업자가 영양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공식에 불과하며 실제 이용율은 적기 때문이다.

더욱이나 심한 경우 최신의 논문이나 전문가도 잘 이해하기 힘든 내용의 학회전문지어나 발표될 것을 일체의 해설도 없이 다루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양계업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특히 교수분들의 기사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미리 원고청탁시에 예비 설명이 꼭 필요시된다. 질병·위생·방역분야는 앞으로는 훨씬 많은 비중이 뒤따라야 할 줄 안다. 집단적인 대단위 양제에서의 질병·위생분야는 무엇보다 중요한 경제요소라 함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재까지는 중요한 질병을 나열한 것이라면 앞으로는 좀 더 실질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영관리 기사와 연관을 갖고서 양계업자 입장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곡시등급의 원충인 곡시디아의 생활사가 어떻고 회충의 생활이 어떻다는 도해(그림)를 열심히 그려 지면을 차지하는 것보다는 곡시등급이 걸렸을 때는 증상이 이러하니 이러 이러 한 치료약이 있다고 확실히 알켜 주는 것이 꼭 선전을 해준다고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어려운 학명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지시하는 것 보다는 공평하게 상품명을 자신있게 명시함이 더 바람직하다. 물론 이는 양계업자 입장에서의 자세를 강조한 것이지만 질병·위생문제는 앞으로 더욱 비중을 높여야 하겠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질병 중에서 호흡기병과 마택병 두가지로 인한 피해가 200억원(円)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경우 한국은 그 비율면에서 더욱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 육중 부화 분야의 기사는 앞으로는 편집면에서 책의 뒷면쪽으로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분야 뿐 아니라 아주 전문화된 기사는 뒷쪽으로 돌려야 될 것이다. 이 분야의 기사를 읽는 독자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기 때문이다. 책을 펴서 보자마자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전문적인 기사가 나온다는 것은 좀 어색하지 않을까?

비전문적인 기사로서 현지탐방이나 해외 기행문을 실는 것은 하나의 사례연구도 되고 전문을 넓히는데 있어서 더 없이 좋은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광고와 연관을 맺는다든지(그럴리는 없지만) 그저 유명한 양계장이다 해서 찾는 식은

안되겠다. 기행문도 마찬가지다. 누가 꼭 어딜 갔다 왔다고 해서 써 달라는 식은 곤란하다. 일부 기행문 중에는 국민학교용 백과사전의 세계지리(地理)에 관한 것만 보면 될 것을 몇페이지씩 할애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해외에 나갔다고 해서 전부 기행문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뭔가 하나라도 보고 배우고 그래서 소개하는 것이라야 되겠다.

수필이나 칼럼·제언 등 부담없이 볼 수 있는 기사를 과소 평가해서는 안된다. 양계잡지라고 해서 전문적인 기사만 게재할 수는 없다. 아무리 직업과 관련 있다고 하지만 따분하게 느껴지는 것만은 사실일진대 중간에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부담없이 볼 수 있는, 보다가 피시시 웃을 수도 있는 기사, 뭔가 할 소리를 대변해 주는 논평 기사,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시원한 기사가 있으면 그 아니 좋겠는가? 이러한 면의 기사를 좀더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다.

해외논문소개는 단편적인 요약기사 보다는 동종류의 기사를 종합해서 해설과 함께 우리나라에 적합 적용하도록 편집해서 페이지 수를 더 늘려 취하는 것이 요망된다. 역시 선진국의 사례를 받아들이는 것이 잘만 되면 국내에서의 경험적인 것보다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시한 발명보다는 알찬 모방이 낫지 않은가?

통계자료가 풍부함은 성장하는 기업의 성공적인 계획과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소홀히 할 수 없는 필요 불가결의 자료이다. 이 자료가 증가되었음은 좋은 일이다.

### 광고!

광고가 없으면 책 불맛이 날런지 모르겠다. 잡지를 받으면 누구나 먼저 광고만 쪽 훑어보고 뭐 이달치도 다 봤다는 식으로 우선 덮어 두었다가 다시 시간날 때 뒤적이는게 잡지다. 잡지의 광고를 보면서 업계의 판도를 점치는 사람도 있다. 과언이 아니다. 그런 광고가 지난 3년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대폭 향상되었음은 경하해 마지 않는다. 그런데 그 광고가 문제다. 흔히 신문에서 얘기하는 과대광고와 필요 이상

의 지면을 할애하는 풀내는 광고, 뭐 이렇게 있어? 할 정도의 저질광고, 자기 회사와는 관계도 없는 외국의 것을 그것도 경쟁회사의 도안을 그대로 이용하는 암채 광고 등이다. 광고의 질을 높이고, 광고량을 늘려야겠다. 외국의 예가 절대적은 아니나 예를 들면 지면의 50% 이상이 광고면인 것이 상당히 많으며 그러면서도 광고만 보아도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광고만 보아도 재미가 있는 것이 많다. 광고도 훌륭한 기사라는 것과, 아울러 멋진 예술품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 필자(筆者)!

(개인적으로 제일 많은 투고기록을 가진분은 서울대의 한인규박사 무려 22편! 교수분 중의 베스트 5은 한인규(22), 오세정(20), 김춘수·최창해(각 15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전문기사의 20%여를 나타내고 있다. 어찌되었던간에 위의 5교수분 이외에도 여러 교수분들의 집필에 대하여 독자를 대신하여 감사드린다.

분야별로는 관리면에서 오세정(20편), 질병분야 박근식(12편), 영양 한인규(22편), 육종 오봉국(10편) 등이며, (그런 분야는 없겠지만 칼럼분야가 있다면 단연 본 소생이 혼자 뛰어서 일등을 달리고 있으며) 3년간 개근하신 닭요리의 원치경선생이 36회로 기록이다. 원치경 선생님, 달걀 요리책을 단행본으로 내셔서 양계산물 소비증대운동 좀 도와주십시오!

업체별로는 나온 원고를 보면 천호부화장(12편) 인산농원(11편), 제일사료(7편), 경북축산(7편) 등의 순인데 기업체에서는 사원들에게 원고를 쓰라는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 돈안드리고 회사 선전하는 것이다. 돈안드는 것이 아니라 돈 벌면서 선전하는 것이다. 원고료는 적지만!

이런 압력을 넣어서라도 필자의 저변 확대를 해서 보다 다양한 폭넓은 기사를 얻어야 하겠다

기사중에서 일부 의심이 가는 것도 좀 있다. (솔직히 말해서(써서) 다 읽어 보지는 못했으며 많다고 할 수는 없고), 1970년 8월에는 부로일러 kg당 생산비가 196원으로 발표되었고 1972년 7월에는 kg당 185원으로 산출이 되었는데(그것



드 같은 필자에 의해서 산출되었는 데) 어떻게 해서 생산비가 하락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만큼 사료비가 떨어졌을리도 없고, 경영합리화가 됐을 것 같지도 않다.

기사 제목중 마λεκ병에 대한 것이 18편이나 되는데 그만큼 마λεκ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좋았으나 같은 제목의 기사가 주기적으로 중복된 적은 없는지 이런 것은 룩시듬증(5편)도 마찬가지다.

두서없이 불평을 늘어놓은 적이 되었으나 나 나름대로의 결점을 찾아보자는 의도에서 나온 건의 사항으로 봐 주었으면 좋겠다. 좀 더 나은 잡지, 좀 더 알찬 내용, 좀 더 가까운 독자와의

거리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주관적인 견해다.

혹 제마음과 자세를 이해하는 독자가 있다면 참여의식을 갖고 적극 서로 도와 “닭, 달걀 요리”란에 나오는 음식맛 같이 맛있는 책을 만들도록 다같이 노력했으면 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월간양계의 질, 량면에서의 발전을 과소평가하고 싶지는 않다. 좀 더 나은 월간양계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이다. 그동안 뒤에서 애쓴 편집진의 노고는 독자를 대신해서 감사드리며 헛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끝으로 1970년 12월 편집후기 난에 나온 편집자의 신념을 소개한다.

“대망의 70년도 이제 저물어 간다. 보내는 아쉬움보다 맞이하는 기쁨과 희망이 더 큰것은 70년도에 해놓은 일보다 앞으로 할 일이 더 크고 보람차기 때문이다.”

—앞으로 할 일이 더 크고 보람찬 것은 인간의 꿈이다.—

양계업계의 앞날도 더 번창하고 보람차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월간양계가 더 큰 기여를 하기 바라며 이만 줄일가 한다. □□

### ◆ 양계인의 영원한 친구 ◆

월 간 양 계

\* 1년분 : 1,500원  
반년분 : 800원

월 간 양 계 합 본

\* 창간호부터 6개월분씩 합본  
각권당 2,000원

육 추 일 지

\* 권당 30원 송료 10원 동봉 신청하시면  
우송 해드립니다.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소액환을 빼어서 한국가금협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국 가 금 협 회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18-11  
26-0321 · 4692